

■광주·전남 라이프사이클 변화로 본 주택 수요 분석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를 비롯한 소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비율이 커지면서 앞으로 중·대형보다는 30평 미만의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이 나왔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중·대형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인 40~54세 인구가 불과 4~5년 뒤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향후 주택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공급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산업전략연구소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4인가구를 구성한 주 연령층은 35~39세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0년(30~34세)보다 4인가구 구성 연령이 4~5세 가량 높아진 것으로, 늦은 결혼과 출산시기 포조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계청의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수요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 4~5년후 중·대형 수요층 감소

미래인구 예측에 따르면 중대형 주택의 주된 수요층인 40~54세 인구도 오는 2013년(1천259만4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향후 주택시장이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 중심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인해 자가주택 수

요는 증가하지만, 60세를 전후로 한 분가 등의 영향으로 소형에 대한 선호경향이 뚜렷할 것이라 분석이다.

특히 광주는 이 연령층 인구가 지난해 31만명에서 2012년 34만9천명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도 지난해 38만7천명에서 2009년 40만6천명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로 접어들게 될

다. 불과 3~4년 뒤부터 중대형 주택의 수요계층이 급속히 줄어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시 '실버'와 '소가족' 등 향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젊은층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월세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나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도시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2000년 이후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나 전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보증금을 낸 뒤 다달이 월세를 부담하는 보증부월세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주택시장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자가나 전세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1인가구나 1가구 2주택자 등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집주인들이 매달 현금에 손에 쥘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민간기업은 계층별 주택수요를 예측, 다양한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주건설 등 4곳 협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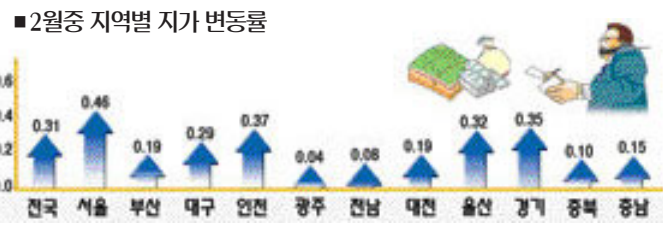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정총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한상원)는 2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대표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주건설(주)을 비롯, 남해종합개발, 남광건설(주), (주)한화건설 등 일반 건설업체 4곳이 전문건설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협회장상을 수상했고, 여주시청은

협회 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김남근(전남대 건설지구환경공학부 4년) 군을 비롯한 157명에게 1억3천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2006년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결산, 2007년 사업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한상원 회장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에 회원사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메이저급 건설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전남 땅값 상승률 전국 최저

부동산대책·경기침체 여파 남구 0.05% ↓-하락폭 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지역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월 토지 거래량 및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자가 상승률은 각각 0.04%, 0.0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0.31%)은 물론 서울(0.46%), 인천(0.37%), 경기(0.35%)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지역 내 토지시장의 상대적인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 남구는 단독주택의 수요감소로 인해 땅값이 0.05%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남도 나주시가 0.11% 오른

것을 비롯, 무안군(0.34%), 해남군(0.07%), 영암군(0.08%) 등 주요 지역의 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승률은 0.08%로 크게 둔화됐다.

반면 수도권 일부 지역 땅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서울 용산은 한남 뉴타운, 주상복합 업무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0.77% 상승했고, 경기 광주시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신도시 후보지설 등으로 0.75% 올랐다.

한편 지난달 전국 토지거래량은 18만5천424필지, 5천262만평으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6.1%, 9.1%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대책과 양도세 부담으로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데다 아파트 부속 토지 등 주거용지의 거래도 17.4%나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시아나, 컨버전스 화물 1호기 도입

화물기는 필요에 따라 승객운송과 화물운송 등 두가지 기능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기종을 말한다. 이날 도입식에는 박찬범 아시아나 항공 부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강주안 사장(아홉번째)과 조중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에서 보잉 747 콰이어 고객을 개조한 컨버전스 화물 1호기를 선보였다. 컨버전스 화물기는 필요에 따라 승객운송과 화물운송 등 두가지 기능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기종을 말한다. 이날 도입식에는 박찬범 아시아나 항공 부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강주안 사장(아홉번째)과 조중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시아나항공제공>

소비자단체 소송제 내년 도입

집단분쟁 조정 오늘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28일부터는 잘못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피해 본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현행 법체계에서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

산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고 공영위에 등록된 지 3년이 넘는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중기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이고 3년간 활동실적이 있으며 50인 이상의 소송제기요청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하세요”

농협, 100만원 상당 쌀 보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올해 시판될 쌀쌀용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협 계통조직을 이용, 적극적인 감시·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내 시·군지부 21곳, 지역농협 134곳에 설치될 수입쌀 부정유통신고센터는 연중 운영하며

신고된 내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부정유통으로 판정될 경우 신고 건당 100만원 상당의 쌀을 현물 지급한다.

또 전남농협은 양곡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농협내부조직인 고향생각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등 60만 회원들을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 감시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정기자 jilee@kwangju.co.kr

금강제화 오늘부터 봄 정기세일

의류 등 20% 할인혜택

금강제화는 28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전국 금강제화·랜드로바·레노마·버팔로 매장에서 봄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남녀 정장구두는 물론 캐주얼화·레저화·골프화 등 제화, 핸드백, 의류까지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일은 봄 상품 뿐 아니라 여름 신상품까지 할인받을 수 있

어 최신 상품을 실속있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올 봄 트렌드인 반짝이는 페이턴트 구두와 핸드백, 캐주얼 및 정장에 잘 어울리는 스니커즈, 어디서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 등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금강제화 외에 에스콰이어도 28일부터 4월8일, 엘칸토는 23일부터 4월8일까지 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서두르십시오!' (Hurry!) featuring a large apartment building and text about '다아빌딩 상가 임대' (Daa Building Commercial Rental).

Advertisement for '새로 발명한' (Newly Invented) '박목정' (Bakmokjeong) product, highlighting benefits like '신체건강' (Body Health) and '운동방편' (Exercise Convenience).